

## 9. 낭포성 방광염 및 선성 방광염 (1 예 보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해부병리과  
박설미, 우영주, 주종은

낭포성 방광염 및 선성 방광염은 1761년 Morgagni에 의해 처음 기술이 되었으며 이것은 방광에서의 양성 증식성 과정을 가리키며 만성 요로 염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광경 소견으로서 낭성 방광염은 미세한 젖빛의 낭이 고유판(lamina propria)에 주로 발생하고 방광삼각에 잘 생긴다.

현미경 소견상 증식된 von Brunn의 상피 세포소가 보이며 이들의 중앙이 낭성변화를 보이면서 이낭이 점액성액의 축적에 의해 확장되면 낭포성 방광염이라고 한다. 상피가 장생화의 점액을 함유하는 원주상피로 피복되면 이를 선성 방광염이라고 하며, 선암의 소인적 요소로 간주되어 정확한 진단이 밝혀질때까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본 예는 37세된 남자가 수년전부터 시작된 배뇨곤란을 주소로 하여 지난해에 방광에 생긴 종양의 의진하에 생검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시행한 반복 뇨세포학적 검사에서는 염증세포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추적 뇨세포학적 검사상 많은 점액을 함유하는 원주 상피 세포가 나타남으로서 세포학적으로도 선성 방광염과 일치한 소견을 관찰할수 있었기에 조직소견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10. 육종양 신세포암종의 세침흡인생검 소견

- 1 예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Sarcomatoid Renal Cell Carcinoma  
- A case report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진윤미, 조미연, 정순희

육종양 신세포암종은 신세포암종의 약 1.0~4.8%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투명세포 혹은 과립형 세포를 갖는 일반의 신세포암종보다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신세포암종의 부분과 육종을 시사하는 방추형의 세포가 섬유조직구종, 섬유육종, 혹은 혁의 이형성이 심한 횡문근육종과 유사하게 배열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며 이 세포들이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cytokeratin에 양성으로 염색되고 전자현미경적 검색에서 부착반, 세포지상돌기와 미세융모가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육종과 감별이 된다.

육종양 신세포암종은 세침흡인생검만으로는 방추형 모양의 역형성 악성 세포가 보인다는 보고 이외에는 진단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절제후 많은 부분의 검색 및 특수염색이